

# 發明教室

##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第22回 發明教室 盛了

12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12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2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
- ...은 아마추어 發明人들이 參席하여 發明人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疑應答...○
- ...을 통하여 아이디어 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株)...○
- ...星進電子 金榮根 전무와 韓國街路樹保護 (株) 朴仁浩 회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 라디오가 내장된 선글라스

(株) 星進電子...金榮根 전무



(株) 星進電子의 「라디오가 내장된 선글라스」는 무명의 發明人 金榮根 전무와 執念의 企業人 吳敏彥 사장이 함께 이루어 낸 發明輸出商品으로 發明界의 귀감이 되고 있다.

發明人 金전무는 發明과는 거리가 먼 經營학을 전공한 무

〈金榮根 전무〉

역인.

미친사람 취급을 받는 역경속에서 創出된 世界最初의 이 發明은 '84LA 엑스포 大賞受賞에 이어 지난 '85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는 商工部長官賞을 受賞, 그 優秀性을 國內外에서 公認받으며 國內外 市場에서 人氣를 독차지하고 있다.

“發明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지요.”

「라디오가 내장된 선글라스」 發明을 위해 낮이고, 밤이고, 택시·버스속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다방에서도, 지하도에서도, 육교에서도...등 오직 선글라스와 더불어 살아 주위에서 “아까운 사람하나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金전무가 이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전. 낚시 및 스포츠 관람시 시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의문을 갖은데서 비롯되었다.

오늘의 FM라디오까지 내장된 선글라스가 탄생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안경테안에 들어가는 기존 소형 바리콘이 전무하여 이를 開發하는데만도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또 전원 역시 안경테 속에 들어가지 않아 이어폰 속에 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으며, 특히 라디오 방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안경테속에 안테나를 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金전무의 發明에 더친 힘은 이같은 문제점을 하나 하나 차분히 해결, 企業人 吳敏彥 사장을 감동시켰고 吳사장의 감응은 (株) 星進電子를 탄생시켰다. 이때가 85年 5月 1日.

“기발한 아이디어나 發明品이라고 해서 반드시 商品化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그것이 商品化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히트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發明人은 企業人과 연결되어 發明人은 發明分野에서, 企業人은 事業分野에서 최선을 다해야 成功할 수 있다는 金전무의 주장.

金전무의 주장대로 (株) 星進電子는 金전무는 發明에 최선을 다하여 AM/FM 라디오가 내장된 선글라스에서 AM/FM 라디오가 내장된 일반안경 및 머리핀라디오등 2~3종류의 새로운 신제품들이 선보일 준비를 마무리해가고 있으며, 吳사장 역시 전문 企業人으로서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실로 몇개월도 안되어 (株) 星進電子를 世界속의 星進電子로 끌어 올렸다.

吳사장의 홍콩과 LA 연락사무소 개설 및 14個國 방문 영업활동 그리고 KOTRA등의 도움으로 금년의 경우 32個國에 700만달러 상당의 輸出契約이 체결되어 輸出중이며, 내년 목표는 1,000만달러인데 이미 美國과 800만달러 契約이 끝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이라 는 것.

“國際의인 스포츠·레저복과 88서울올림픽등으로 수요는 급증 추세지요.”

그러나 이것도 유행성이 가고 금세 주저앉을 염려가 있어 金전무는 오늘도 새로운 發明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 가로수 로울 덮개

韓國街路樹保護 (株) 朴仁浩 회장



〈朴仁浩 회장〉  
路樹保護株式會社 朴仁浩 회장.

朴회장은 ‘발명박사’라고 불릴 정도로 발명에 대한

요즘 도심지에서 볼 수 있는 가로수 로울덮개는 여러 종류 디자인으로 가로수, 공원, 아라토지역, 일반주택정원, 교회, 사찰, 관광지, 공공시설, 체육공원 및 학교 조경등에 미화를 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韓國街

지식이 해박하다.

그가 발명계에 몸담은 것은 20년전. 평소 발명에 상당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그는 발명가들이 많은 나라 일수록 두뇌를 이용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데 남다른 관심을 갖기도 했다.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 병들어 죽어가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타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朴회장은 79년부터 이 방면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연구주제는 「가로수 로울덮개를 이용, 보도 불력으로 인해 수분 흡수를 못하고 큰크리트에 의한 자극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영구히 보존, 수목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는 것.

오랜 연구결과 떠오른 아이디어가 가로수 로울 덮개였다. 그가 갖고 있는 公營소유권만 해도 200여건을 헤아리며, 로울 덮개에만도 약 170건이 등록되었다. 朴회장이 내놓은 가로수 로울덮개의 특징은 첫째, 가로수의 근원부를 보행인의 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수분 및 산소가 잘 흡수되며 수세를 강하게 하여 준다.

둘째, 비로중기가 간편하며 낙엽이 들어가 쌓이고 썩어서 거름이 된다.

셋째, 오염된 공기를 흡수하며 산소의 증산요인을 만든다.

넷째, 한번 설치로 반 영구적이며 도시의 가로를 아름답게 가꾼다.

다섯째, 수목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고 문화국민의 긍지를 갖게 한다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朴회장은 많은 경륜속에서 나오는 두뇌플레이가 참다운 발명품을 배출할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발명가는 받는 것이 아니고 주고가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한다.

현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82년 우수발명가로서 금상 수상한 경력과 84년 5월 19일 발명장려대회에서 산업 포장을 수상한 발명가.

특히 朴회장은 우리나라의 교육방향이 발명창의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내다보며 발명을 장려하는 정책이 크게 부흥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내다 본다.

여건이 주워진다면 집성촌을 만들어서 공동발명하고 발명가들의 발명품을 소장하는 박물관을 지어 후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허가도 없고 효력도 없는 유사품이 나와 모처럼 성공한 발명가들의 발명품의 이미지가 깎일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畝〉